

동아시아는 EU에 필적하는

공.동.체.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표정훈 _ 출판평론가

왜 하필 지금 동아시아가 문제인가? 동아시아는 역내 개별 민족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문화적,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의 이른바 동아시아 담론이란 현실과는 별 상관없는 일부 학자들의 지적 관심사에 불과한가?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은 동아시아라는 말을 통해 제각기 동상이몽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제 나름의 어떤 의도, 고도의 국제 정치적 의도를 함축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여러 질문을 새삼 나열해 보는 건, 최근 우리 출판계에서 동아시아를 주제로 하는 책들이 전에 없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 물론 동아시아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을 다룬 다양한 관련 도서는 오래 전부터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나오는 동아시아 관련 도서의 특징은 '동아시아라는 것' 자체에 주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주제로서의 동아시아, 문제로서의 동아시아에 좀더 천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역시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창비에서 출간한 전 6권의 ‘동아시아의 비판적 지성’(권 광성 외 지음, 백지운 외 옮김, 백영서 등 대담)을 들 수 있다. 전후에 동아시아에서 태어나 성장한 비판적인 지식인 6명의 동아시아에 관한 사유를 담고 있는데, 각 권이 지적편력-문선-대담의 3부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지적편력에서는 우리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은이의 지적 배경을 설명했고, 문선에서는 기획위원들과 지은이의 협의를 통해 선정된 논문을 실었으며, 대담은 논문에서

다른 문제를 논쟁과 해설을 통해서 되새겨보는 자리이다. 이러한 책의 구성은 기획위원들의 간단치 않은 고민의 결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동아시아 지역 내 다른 나라의 지식인 사회나 지적풍토 나아가 개별 지식인에 관한 정보 자체가 나라들 사이에 원활히 소통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간헐적으로 저서가 번역, 소개되는 일부 지식인을 제외하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중국, 대만, 일본 등의 독서인들에게 다른 나라의 지적 풍토는 낯설기만 하다. 때문에 이 기획물은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상견례 그 자체라고도 볼 수 있다.

» 내용으로 보면 일종의 '비판적 동아시아론' 혹은 '성찰적 동아시아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민족주의, 국민국가, 국민주의에 대한 의견에서 학자에 따라 비판과 부분 긍정이 교차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 학자의 민족주의 비판작업이 비판을 위한 비판에 머무는 감이 없지 않다는 날카로운 지적도 나온다. 요컨대 동아시아론의 다양한 모양새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며, 동아시아라는 것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기회와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나라 학자들 사이에서 오고 갔을 대화와 이해, 때로는 오해까지도 그 자체가 소중한 '동아시아적 체험'이었을 법하다.

» 그런 기회 혹은 자리로 출판계 안팎에서 큰 화제를 모은 책이 바로 《오만과 편견》(임지현·사카이 나오키 대담, 휴머니스트)이다. 이 책은 명시적으로 동아시아라는 주제를 다루지는 않지만 민족과 민족, 남성과 여성, 동양과 서양이라는

경계짓기 혹은 타자에 대한 억압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이를 재현해 왔는가를 되짚어본다. 요컨대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동아시아 공통의 역사적 경험이 대담자들의 소통에서 중요한 실마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 이 대담은 우리말은 물론 일본어로도 기록돼 일본 이와나미岩波 출판사에서 책이 나올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우리나라와 일본의 출판사가 제휴, 협력한 사례, 바꾸어 말하면 '출판의 동아시아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체험은 앞으로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리라 예상해 본다. 문제로서의 동아시아를 다룬 책들의 출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자 혹은 대담자들은 물론 동아시아 출판인들 사이의 인적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갖는 의미는 결코 범상치 않다. 지식을 소통시키는 각기 다른 경험과 역사와 노하우가 만나 새로운 접점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 한편 최근 동아시아 담론에서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흐름이 바로 일국사—國史의 틀에 갇힌 개별 국가의 역사를 좀더 넓은 세계사의 맥락에서 파악하려는 시도다. 명청사를 전공한 기시모토 미오 도쿄대 교수와 한국 근세사 전공인 미야지마 히로시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가 500년에 걸친 조선사와 명청사를 동아시아사의 관점에서 한데 묶어낸 책이 바로 《조선과 중국 근세 오백년을 가다 : 일국사를 넘어선 동아시아 읽기》(김현영·문순실 공역, 역사비평사)다. 제목보다는 부제목이 눈길을 끈다. 한 나라의 개별 역사를 넘어서서 동아시아라는 보다 넓은 관점을 취하겠다는 것인데, 그 포부의 달성 여부는 일단 접어두고, 비슷한 성격의 시도가 훨씬 더 자주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주제에 따라서는, 예컨대 《동아시아의 아나키즘, 그 반역의 역사》(조세현 지음, 책세상)처럼 동아시아 국가 공통의 주제를 비교론적으로 고찰하는 책도 좀더 많이 시도되었으면 한다. 그 밖에도 삼인에서 출간하고 있는 '아시아연대총

서'는 《동아시아 인권의 새로운 탐색》, 《위기의 아시아》, 《만들어진 고대 : 근대 국민 국가의 동아시아 이야기》 등 무척 있는 다양한 주제를 다룬 책들로 진작부터 주목의 대상이었다. '연대'라는 시리즈 제목의 말이 범상치 않다. 아시아 혹은 동아시아라는 현실을 그저 바라보는 것에서 한 발 나아가, 연대를 지향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 글 첫머리에서 던졌던 질문을 다시 던져본다. 동아시아가 단순한 지리적 규합 개념에서 더 나아가 EU에 필적하는 공동체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20세기의 역사적 상처'를 완전히 씻고 그런 수준의 협력과 연대로 나아가는 게 쉬울 리 없다. 다만 최근 우리 출판계와 지식인 사회 일각에서 동아시아 담론이 두드러진다는 건, 협력과 연대를 위한 상호 이해의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감하고 있다는 뜻은 아닐지. 그렇다면 동아시아 공동체의 꿈이 무척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건 결코 아니라고 희망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

